

#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생업연구\*

-제주도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최 종 혁\*\*

<목 차>

- I. 머리말
- II. 시간과 공간
- III.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생업문화
- IV. 맺음말

국문요약

우리나라 신석기 연구에 있어 초창기 설정의 문제는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물론 제주도 고산리 유적의 발견과 조사로 인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초창기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왔지만, 동북아시아의 초창기와는 절대연대의 문제와 문화양상과는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초창기 연구가 대부분 그 계통과 편년에 연구가 치중되어 더욱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초창기와 초기)의 삶, 즉 생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창기 유적이 아직 제주도에서 한정되어 확인되고 있어 한반도와 비교연구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생업문화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동식물 유체, 즉 자연유물의 출토 예가 없어 생업문화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적의 입지와 도구조성 등을 중심으로 이른 시기의 생업문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초창기에는 수렵과 채집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반면, 어로활동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초기에는 양

\* 본 논문은 2018년 한국신석기학회 정기 학술대회 「제주 고산리유적 신석기문화의 서막을 열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 부경문화연구원 원장

지역 모두 어로활동이 확인되며 남부지역에서는 중심적인 생업활동을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로 인해 남부지역의 조기의 대표적인 토기인 용기문토기가 제주도에서도 확인되며 양 지역의 교류활동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초창기 유적에서 출토하는 석기의 석재에 있어 한반도 산 석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와 남부지역과의 교류 등을 엿볼 수 있었지만 어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한반도 남부지역에 초창기 유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해결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이른시기, 생업, 교류, 자연환경, 제주도, 남부지역

---

## I. 머리말

고고학에서 생업문화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업활동을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생업활동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생업활동에 직접 사용된 도구(수렵·어로·농경구 등)를 비롯해 각 생업활동의 대상인 자연유물(동물·식물유체)과 경작지와 함정 등의 유구, 유적 입지와 경관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고의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유적의 경우, 시기적인 차이와 유적성격의 차이로 정확한 비교 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제주도에서는 초창기가 확인되지만, 남부지역에서는 아직 제주도와 같은 초창기유적은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제주도 조기유적의 문화상은 희박해 남부지역과 비교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제주도 이른 시기의 유적은 고산리유적(주거지와 수혈유구 등)으로 대표되는 유적과 유물포함층 유적이 대부분인 반면, 남부지역의 유적은 패총과 유물포함층 유적으로 유적의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생업문화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자연유물 출토가 많은 남부지역과 비교해 제주도에서는 자연유물의 출토가 빈약해 구체적인 비교 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적 입지와 도구조성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남부지역의 이른 시기 생업문화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II. 시간과 공간

### 1. 시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편년은 토기 문양의 변천에 의해 크게 6시기(초창기-조기-전기-중기-후기-말기)로 구분되며,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역의 편년은 고산리식 토기가 중심인 초창기를 시작으로 용기문토기가 중심인 초기, 영선동식 토기가 중심인 전기, 수가리식 토기가 중심인 중기, 중기 수가리식 토기의 문양부위 축소와 시문기법의 퇴화에 의해 후기, 무문양화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현하는 말기로 크게 구분된다.

본고에서 이른 시기란 남부지역 편년 중 초창기와 조기를 포함한 시기로 고산리식 토기와 용기문토기가 중심인 시기이다. 한편, 초창기를 대표하는 고산

리식 토기는 아직 남부지역에서 출토되지 않는 반면, 조기를 대표하는 용기문토기는 제주도에서 고산리식 토기와 공반하는 유적과 그렇지 않는 유적이 있으며, 그 분포는 후자의 경우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 상관관계에 있어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며 현재는 고산리식 토기가 용기문토기보다 선행하는 토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토기로 인식되고 있다.<sup>1)</sup>

따라서 본문에서 사용한 초창기는 현재 제주도 지역에서만 확인되며,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고산리식토기를 중심으로 무문양토기, 압날점열문토기가 순차적으로 공반되는 시기이며, 조기는 양 지역 모두 용기문토기가 주체를 점하며 제주도에서는 초창기 토기 중 고산리식토기가 소멸하며 용기문토기가 출현하는 시기이며, 남부지역에서는 용기문토기를 중심으로 지두문, 자돌문 등이 공반하는 시기로 한정하고자 한다.

표 1. 제주도와 남부지역 초창기와 조기 편년

시기	제주도	비고	시기	남부지역	비고
초창기 I	고산리 고산리+무문양토기		초창기 I	? ▲	
초창기 II	I+압날점열문 고산리 소멸		초창기 II	? ●	
조기	II+용기문	남부지역 용기문 III-IV단계 主	조기 전반	용기문 I-II	
			조기 후반	용기문 III-IV	IV단계는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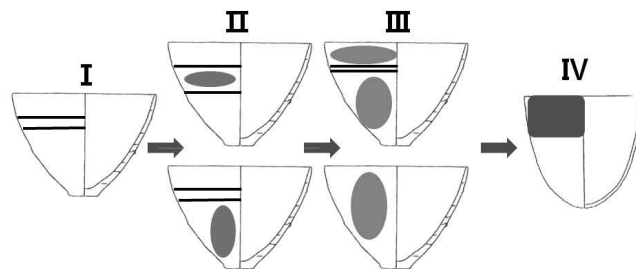


그림 1. 남부지역 용기문토기 문양 및 시문부위 변천 모식도  
(I ~ III단계는 조기, IV단계는 전기)

<sup>1)</sup> 그러나 제주도 출토 용기문토기의 경우 한반도 남부지역의 용기문토기 편년에서 古式으로 편년되는 구순에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평행하는 용기문이 시문된 토기는 아직 제주도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 그 다음 단계로 편년되는 용기문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고산리식 토기와 용기문토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남부지역에서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공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문화는 자연환경과 토기문화로 크게 5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식물대는 亞寒帶林과 北部溫帶林이며 평저토기가 중심인 서북지역과 동북지역, 식물대는 中部溫帶林이며 침저·환저토기가 중심인 중서부지역, 식물대는 溫帶林과 南部溫帶林이며 시기에 따라 평저토기에서 침저·환저토기로 변화하는 남부지역과 中部溫帶林인 동해안지역(中東部地域)으로 분류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한반도 남부지역과 제주도로 위 분류에서 남부지역에 속한다. 자연조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남부지역은 한반도 南端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고 太白山脈의 支脈인 小白山脈과 蘆嶺山脈에 의해 중서부지방과 구분된다. 지형은 이 산맥에 둘러싸인 侵蝕盆地의 남쪽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고도가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고, 老年期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해안은 구릉성 산지가 침강에 의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해 많은 반도와 만이 발달하고 동시에 3,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식물대는 島嶼·海岸·內灣地域이 暖帶林(暖溫帶常綠照葉樹), 內陸地域이 南部·中部溫帶林(暖溫帶落葉廣葉樹)에 속한다. 水資源도 풍부해 동남부에는 洛東江이 남하하면서 금호강·황강·남강 등의 지류와 합류한다. 중남부에는 보성강 등의 지류로 구성되어 있는 섬진강이 있고, 서남부에는 영산강이 있다. 이와 같이 남부지역은 지리나 환경 등으로 크게 4개의 지역(島嶼·海岸·內灣·內陸地域)으로 구분된다. 內陸地域은 풍부한 森林과 水源, 島嶼·海岸·內灣地域에는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라고 하는 지형조건과 寒·暖流의 유입에 의해 魚類의 産卵場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패류가 많이 서식하는 暗礁性海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섬 중앙에 한라산(약1,950m)이 위치하고 있으며, 식물대는 한라산을 중심해 수직분포하고 있는데 해발고도에 따라 해안식물대(0-200m), 2차 초지대(200-600m), 낙엽활엽수림대(600-1,100m), 침엽수림대(1,100-1,500m), 관목대(1,500m)로 구분되며, 난대·온대·한대·고산식물 등이 고루 분포한다. 섬에



그림 2. 제주도 및 남부지역 유적분포(이른 시기)

서 주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자원의 경우, 용천수는 한라산 백록담 기슭에서부터 해안지대에 이르기 까지 여러 곳에 분포해 하는데 대부분은 해안지대에 분포하며, 해발 200m 이상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어 수자원은 풍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풍부한 자연환경에 의해 제주도 역시 이른 시기부터 유적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그림 2).<sup>2)</sup>

### Ⅲ.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생업문화

본고에서 다룬 이른 시기(초창기와 초기)의 유적 분포는 초창기의 경우 제주도에서만 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sup>3)</sup> 초기에는 양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유적 성격은 초창기에는 주거지 및 수혈유구가 검출되는 생활유적과 유물포함층 유적이 대부분이며, 초기의 경우에는 제주도의 경우 동굴유적 등이 확인되지만 초창기와 유사하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대부분 패총유적이며 유물포함층 유적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유적 성격의 차이로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초창기와 초기 유적에서는 자연유물의 출토가 거의 없는 반면, 남부지역의 초기유적에서는 많은 양의 자연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적 입지와 도구조성 등을 중심으로 생업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구의 분류에 있어서는 생업활동에 관련된 석기의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수렵구·어로구·농경구·채집구, 그 외 공구와 가공구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sup>4)</sup> 단, 축과 창 등 수렵구의 경우 유적의 입지에 따라 어로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본고에서는 수렵·어로구로 분류하였다.

<sup>2)</sup> 한편, 양 지역 사이에 위치하는 남해안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도 부족하고 고고학적으로도 동물유체(어류와 패류)의 출토가 없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기 남부지역에서 출토하는 동물유체로 보아 수온·해류 흐름 등 지금과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sup>3)</sup> 남부지역에서도 초창기로 추정되는 유적(상노대도 상리와 임블리 유적 등)이 있지만, 토기가 출토하지 않는 점과 오진리 암음유적의 경우도 제주도 초창기와 비교하기에는 미비해 본고에서는 제외하였음.

<sup>4)</sup> 제주도의 석기에 대해서는 박근태선생의 분류 안에 따랐다.

박근태, 2011,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제21호, 43~83쪽.

## 1. 초창기

이 시기는 제주도에서만 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산리 유적을 비롯해 강정동·삼화지구·김녕리·오등동 유적 등이 있다. 먼저 유적 입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해발 100m 이하의 해안가나 해안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등동 유적과 같이 해발 300m 이상에 분포하는 유적도 있다. 그리고 해안가나 해안저지대에 위치하는 유적의 경우 해안과 거리는 멀지 않자만, 해안단구나 해안에서 한 단 높은 대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수자원의 경우, 제주도 하천 분포는 대부분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북쪽과 남쪽 해안으로 유입되는 분포로 초창기 유적 중, 김녕리 유적 이외에는 하천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해안가와 해안저지대에 집중 분포하는 용천수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다. 한편, 하천과는 거리가 있는 김녕리 유적은 해안저지대에 분포하는 용천수가 근거리에 위치해 수자원의 부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초창기 유적들의 분포를 보면 오등동 유적을 제외하면 해안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며, 천변이나 용천수가 풍부한 해안단구 위나 평탄대지(해발 100m이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 제주도 초창기 및 조기 유적분포

도구조성을 살펴보면, 후기구석기의 전통이 남아있는 세석핵과 세석인을 비롯해 수렴·어로구로 타제석촉·찌르개, 공구·가공구로 침두기·밀개·긁개·고석·지석·박편·갈돌·갈판 등이 출토해 초창기의 도구조성으로 보아 어느 정도 완성된 조성을 보이고 있다. 또 갈판과 갈돌의 출토 양이 많은 것과 시기는 다르지만 한반도 남부지역에 조기에 많이 출토하는 결합식조침을 비롯해 작살이나 어망추

등 전형적인 어로구의 출토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궁시어법이 라는 (석)촉을 이용한 어로법이 있다. 그러나 동물유체를 비롯해 골각기의 출토가 없어 단언할 수 없지만, 어로에 대한 활동은 수렵이나 채집활동과 비교해 소극적인 활동 내지는 없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57)</sup>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중 시기를 막론하고 석촉이 가장 많이 출토하는 것도 초창기(제주도)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타계석촉은 크게 무경식과 유경식으로 분류되며 제 속성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분류되는 등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초창기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유적에 따라 무경식과 유경식의 출토 비율과 형태 등 속성이 다르지만, 유적과 형태에 상관없이 석촉은 길이 5cm 미만의 것과 무게는 2g 정도의 것이 대부분으로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수렵 또는 어로의 대상을 알 수 있는 동물유체가 없는 관계로 현 시점에서 두 형식의 석촉 성격에 대해서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창기 제주도의 생업문화는 석촉과 침두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렵활동이 중심이며 고석을 비롯해 갈돌과 갈판 등으로 보아 견과류 중심의 식물채집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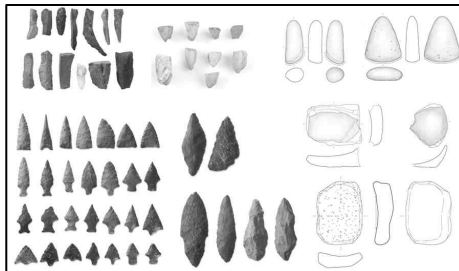


그림 4. 제주도 초창기 도구구성



그림 5. 초창기 생업형태

## 2. 초기

이 시기에 제주도의 유적분포는 초창기 유적의 경우, 고산리·강정동·오등동 유적 등 대부분 초기까지 연속적으로 지속되며, 고산리동굴·사계리·도두동·삼양동·삼양초등학교·한동리 유적 등 새로운 유적이 확인되어 유적분포는 초창기보

<sup>57)</sup> 많은 양의 석촉을 비롯해 침두기 등이 수렵구로 한정될 때, 수렵 후 제작 가능한 골각기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어로구의 대부분이 골각기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초창기 이후에도 제주도에서 어로구의 출토가 적은 것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제주도의 어로구에 대해서 세석인을 이용한 조합식 석기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초창기 이후에는 출토 예가 없는 실정이다.



다 확대된다. 유적 성격은 초창기와 유사하며 동굴유적이 새롭게 확인된다. 오동동 유적과 고산리동굴 유적 이외에는 초창기와 같이 해발 100m 이하의 해안가나 해안저지대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유적이 용천수 부근이나 하천변에 입지한다(그림 3).

도구조성을 살펴보면, 초창기와 비교해 석촉과 침두기의 출토 양이 극감하는 것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양과 종류가 크게 감소한다. 초기 도구조성의 특징으로는 초창기에는 출토하지 않은 어망추 1점(신천 한못계굴유적)이 출토하는 것과 타제석부의 등장으로 생업에 있어 확실한 어로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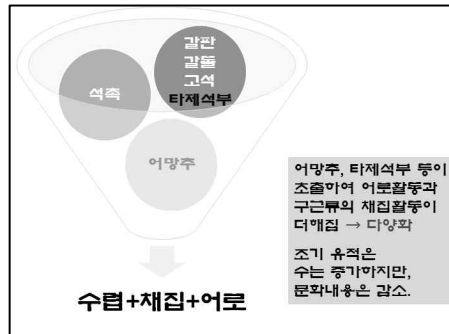


그림 6. 초기 생업 형태(제주도)

동과 견과류뿐 아니라 구근류의 채집활동도 행해져 생업활동이 초창기보다 다양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석기 출토양이 적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공구와 가공구 중, 갈판과 갈돌은 지속적으로 출토되며, 지석의 비중이 높아져 마제석기나 골각기 등의 제작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sup>67)</sup>

한편, 초창기에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남부지역에서도 유적이 확인된다.

초기 유적을 살펴보면, 도서지역 패총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遠島)에 입지하는 것과 가까운(近島)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sup>68)</sup> 원도에 속하는 경우는 여서도·상노대도·육지도 등이 있으며, 이 패총들은 육지로부터 대부분 10km 이상 떨어져 있다. 입지는 해안 구릉사면의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해발은 대부분 10m 이하로 해안과 근접해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서도 패총은 15m 전후로 남부지역 패총 중에는 해발이 높은 편에 속한다. 패총 성격은 묘나 주거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7. 남부지역 초기유적 분포도

<sup>67)</sup> 지석은 증가하지만, 골각기는 출토하지 않고 마제석기 출토양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sup>68)</sup> 近島에 속하는 패총(돌산송도·안도·동삼동 등)은 주변 환경이나 지리적인 조건 등으로 보아 해안지역 패총과 유사해 해안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해안지역의 패총은 돌산송도·안도·동삼동 등 육지와 근접한 도서지역에서 확인되는 경우와 다대포 등 해안에서 확인된다. 패총은 도서지역의 패총보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하지만, 해발은 10m 이하로 대동소이하다. 패총의 성격은 도서지역 패총과 대동소이하다.

내만지역 패총은 앞 두 지역보다 분포하는 유적이 적으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강 하류역에 위치하는 부산 범방 패총이 있고, 창녕 비봉리 패총과 같이 중류역에 위치하는 패총도 있는데 이 패총들은 형성 당시에는 海水의 영향을 받아 이 일대가 古大山灣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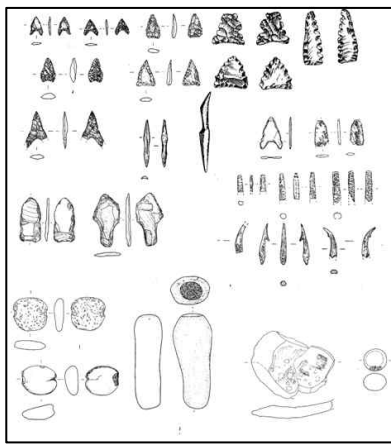


그림 8. 남부지역 조기 도구조성

남부지역 조기 패총 입지는 구릉의 경사면에 분포하는 것이 많고, 해안에 근접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패총의 해발은 10m 이하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 패총 중, 해발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패총의 성격은 주거지·야외노지와 묘 등이 확인되며, 많은 양의 인공·자연유물이 출토해, 일시적인 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거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비봉리 패총에서는 도토리 저장혈이 확인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조기부터

말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패총은 중기문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 남부지역 조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주로 남부지역 동남해안에 위치하는 유물포함층유적으로 신암리 유적을 비롯해 해 우봉리·세죽 유적 등이 있다. 입지는 해안단구나 해안저지대에 위치하며 많은 양의 인공유물과 자연유물이 출토되었다. 세죽 유적에서는 비봉리 유적과 같이 도토리 저장혈 등이 확인되었다.

남부지역의 도구조성을 살펴보면, 각 유적군에 구분 없이 수렵·어로구로 석촉, 석창, 결합식낚시, 작살, 자돌구, 어망추 등이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출토 예가 없는 골각기(작살, 찌르개, 결합식낚시의 바늘 등)의 출토 양이 많다. 석촉은 초창기와 비교해 석재나 형태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흑요석이나 사누카이트를 이용한 것이 많다.<sup>87)</sup> 양적인면에서는 결합식낚시가 가장 많다. 공구·가공구

<sup>87)</sup> 초창기의 석촉(유경식)과 같은 형태는 울주 신암리유적에서 용기문토기와 같이 출토되었다. 부경문화연구원, 2017, 『蔚州 新岩里 遺蹟』 고적조사보고 제22집, 도면204-p.412, 사진109-527쪽.

로는 밀개·굽개·고석·지석·박편·찰절석기·석도·타제석부·마제석부·석시·유전석기·갈돌·갈판 등으로 초창기와 비교해 종류가 다양해지며, 전체적으로 양이 증가한다. 또 석도·찰절석기·석거·석시 등은 처음 출토한다. 특히, 석시는 일본 구주지방의 석기로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 석시는 흑요석·사누카이 트와 함께 일본 구주지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제주도 초창기와 조기에 많이 출토하는 갈판과 갈돌의 경우는 남부지역에서는 주로 해안과 내만유적군에서 많이 출토한다. 남부지역 생업활동은 초기에는 패류 채집에 있어 유적입지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굴이 주체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수렵·어로활동의 대상인 동물유체를 보면 사슴목이 주체이며 그 외 멧돼지·강치·고래·돌고래 등의 포유류와 참돔·상어·다랑어 등의 어류가 출토되는 것을 보아 앞에서 살펴본 도구조성과 종합하면 수렵과 어로활동(외양성)이 주체이며 해안과 내만지역에서는 채집활동도 활발히 행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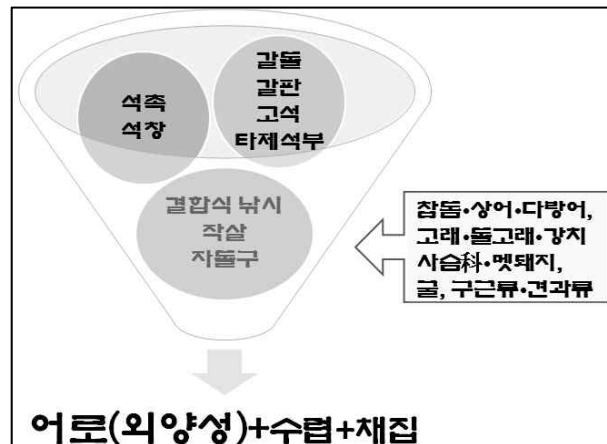


그림 9. 초기 생업형태(남부지역)

### 3. 소결

이상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의 생업에 대해 도구조성과 유적입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창기의 경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제주도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생업형태는 타제석촉과 침두기가 중심이며 갈돌과 갈판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도구조성으로 보아 수렵활동과 식물채집활동이 주된 생업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렵은 유적 입지와 석촉의 속성으로 보아

사슴科 동물과 소형 동물이 주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많다.<sup>9)</sup> 채집의 경우는 굴지구의 출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근류보다는 견과류가 주된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로활동에 대해서는 석축을 이용한 궁시어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패총이 없는 점, 유적 입지가 해안단구와 해안보다 한단 높은 대지에 위치하는 것 등으로 보아 어로활동은 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행하였다고 해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기의 남부지역에서는 많은 유적이 확인되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유적이 증가하고 그 분포도 넓어지지만 초창기에 비해 문화내용이 적어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신천 한뫼괘골유적에서 어망추가 출토해 어로활동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타제석부가 출토해 채집활동에 있어 구근류에 대한 활동이 더해지는 양상을 알 수 있다.

한편, 남부지역에서는 동굴·패총·유물포함층·집단묘지 등 여러 성격의 유적이 확인되며 입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석축·작살·결합식납시·어망추 등이 출토하며, 동물유체로는 사슴科를 비롯해 멧돼지·고래·강치 등의 포유류와 참돔·상어류 등 근해~외양에 서식하는 어류가 주체를 점한다. 또 해안유적군과 내만유적군에서는 갈돔과 갈판이 출토해 식물채집활동도 활발하게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부지역의 생업형태는 외양성 어로와 수렵활동이 중심이며 채집활동(조개·식물)도 활발히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채집활동은 유적 입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제주도와 남부지역의 이른 시기 생업형태는 유적입지와 도구조성을 비롯해 동물유체로 살펴본 결과, 초창기에는 제주도에서만 유적이 확인되며 생업형태는 수렵과 채집이 중심이며,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채집활동이 행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양 지역에서 유적이 확인되지만, 유적 수나 출토 유물에 차이가 많아 정확한 비교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도 초창기에 확인되지 않았던 어로활동이 첨가되고 채집활동에 있어서도 구근류가 이용되는 등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남부지역은 패총을 비롯해 여러 성격의 유적이 확인되며 유적입지와 출토유물로 보아 외양성 어로와 수렵이 중심이며 채집활동도 활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기 남부지역에서는 石材(흑요석·사누카이트)를 매개체로 일본 구

---

<sup>9)</sup> 물론 쉼사냥을 비롯해 함정, 덫을 이용한 수렵활동 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상을 알 수 있는 동물유체가 없어 정확한 상황은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함정의 경우는 초창기 유적에서 굴지구의 출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역과의 교류활동에서 중심유적(동삼동과 신암리 등)이 존재하는 등 조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연장선으로 제주도와의 교류가 행해져 용기문토기가 제주도에서 출토하며 어로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유적 분포와 문화내용으로 보아 초창기와 조기에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한 유적과 동굴유적도 확인되는 것에서 이 유적들은 해안단구나 평탄대지(해발 100m 이하)에 위치한 중심유적(중심지)에서 수렵과 채집활동을 위한 캠프지와 같은 성격의 유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초창기의 사회도 꽤 조직적인 사회를 엿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남부지역에 유적이 없고 제주도 유적에서도 어로활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에서 초창기 석기의 석재 중 제주도에는 없는 석재, 즉 한반도 산 석재가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맺음말

제주도와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생업문화에 대해 유적입지와 도구 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유적 수와 문화내용에서 남부 지역과 차이가 있고 동물유체의 부재로 다양한 해석은 힘들었지만, 초창기는 수렵과 견과류와 열매 등의 식물채집이 중심인 생업형태에서 조기에 어로활동이 첨가되며 타제석부와 같이 굴지구의 출현으로 보아 구근류가 첨가 되는 등 식물채집 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화되는 양상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부지역에서는 조기부터 활발한 외양성 어로를 비롯해 수렵과 채집활동이 행해졌으며, 활발한 외양성 어로활동에 기인한 일본 구주지역과 제주도와의 교류활동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자료의 차이로 이번 연구에서는 양 지역의 생업문화에 대해 단편적인 비교에 그쳤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금후 자료증가를 기다려 보완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이른 시기 생업문화를 살펴보면서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 초창기 어로활동 문제.

본고에서는 초창기에 어로활동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로는 도구조성에 있어 어로구로 판단되는 석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석촉과 침두

기는 수렵활동뿐 아니라 어로활동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기는 다르지만 남부지역 초기에는 석촉·석창과 함께 결합식낚시·어망추·작살·골제·자돌구 등 어로구가 함께 출토하며, 꽤 채집도 활발한 것에 비해 제주도 초창기에서는 그러한 행위 즉, 바다 자원의 이용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수량은 적지만 초기부터 어망추가 출토된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초창기 어로구에 대해서는 박근태의 지적과 같이 석인을 조합한 조합식 석기나 골각기의 사용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문제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초창기 교류 문제.

초창기 제주도 신석기인들의 石材 유입의 문제이다. 즉, 고산리·삼화지구 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제주도에서 산출되지 않는 石材 문제이다. 삼화지구 유적 보고서에 의하면 석촉과 석창 등 소형석기의 경우 응회암·석영·혼펠스 등 제주도 외부의 석재가 주로 사용되었고, 갈돌·갈판·공이 등 대형석기의 경우는 현무암 등 제주도 산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up>10)</sup> 그럼 제주도 초창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외부 석재의 유입 경로와 방법의 문제, 즉 초창기인들의 교류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초창기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같은 시기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석재는 제주도 신석기인들이 직접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설은 남부지역에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초창기유적이 존재하며 그 사람들과의 교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앞에 제기한 바다를 무대로 행한 활동(어로활동)의 부재가 문제가 될 것이며, 후자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제주도 초창기인들의 어로활동 여부와 양 지역의 상대편년에 따라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판단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 자료의 증가와 좀 더 세밀한 양 지역의 상대편년을 행한 뒤 살펴보고자 한다.

■ 투고일 2020년 03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0년 04월 03일 |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13일 ■

<sup>10)</sup> 김동규, 2011,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소고-삼화지구 가-2지역(2차)유적을 중심으로-」, 『제주 삼화지구유적』 동양문물연구원 조사연구보고 제4집, 476~489쪽.

## 참고문헌

- 강창화, 2006, 「제주 고산리 신석기문화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창화·김종찬, 2008, 「제주도 신석기문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신석기연구』 제16호
- 고재원, 2013, 「유물로 본 제주도 고산리문화」, 『한·일 초기 신석기문화 비교연구』 제10회 한·일 신석기시대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김건수, 1998, 「호남지방의 신석기시대 생업」, 『호남고고학보』 7.
- \_\_\_\_\_, 1999, 『韓國 原始·古代의 漁撈文化』 學研文化社.
- \_\_\_\_\_, 2009, 「海峽을 둘러싼 신석기시대 어민」, 『한·일 신석기시대의 어로와 해양문화』 제8회 한·일 신석기시대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김동규, 2011,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소고 : 삼화지구 가-2지역(2차)유적을 중심으로」, 『제주 삼화지구유적』 동양문화연구원 조사연구보고 제4집.
- 김희찬, 1995, 「新石器時代 食糧獲得과 貯藏性」, 『亞細亞古文化』 學研文化社.
- 박근태, 2006, 「고산리유적 석촉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1a,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검토 : 초기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 연합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1b,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1.
- \_\_\_\_\_, 2014,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초창기, 초기단계의 편년 및 병행관계 검토」, 『한국 신석기시대 편년과 지역간 병행관계』 2014년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 박성근, 2018, 「고산리유적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제36호
- 소상영, 2017, 「제주 고산리 유적의 편년과 성격」, 『한국신석기연구』 제33호
- 신숙정, 1994,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연구 : 동삼동·김해·남해도 서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 이동주, 1997, 「韓國先史時代南海岸有文土器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 \_\_\_\_\_, 2003, 「빛살문토기 단계의 석기내용과 특징」, 『한국신석기연구』 6.
- 이상규, 2013, 「신석기시대 골제 자돌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4, 「신석기시대 한반도 해안지역 작살에 관한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7.
- 이영덕, 2006a, 「서·남해안 신석기시대 어로구와 어로방법」, 『신석기시대의 어로 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_\_\_\_\_, 2006b, 「신석기시대 잠수작살의 가능성」, 『한국신석기연구』 11, 한국신석

기학회.

- 이청규·강창화, 1995, 「高山里遺蹟과 石器遺物」, 『亞細亞古文化』學研文化社.
- 윤정국, 2011, 「남부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변천과 양상」 『한국신석기연구』 제22호
- \_\_\_\_\_, 2015,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제작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1,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서경문화사.
- \_\_\_\_\_, 2012,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서경문화사.
- \_\_\_\_\_, 2016, 『신석기시대 석기론』진인진.
- \_\_\_\_\_, 2016, 『신석기시대 석기집성』진인진.
- 최중혁, 2004, 「新石器時代 南部地方 生業에 對한 研究」, 『濟州道 新石器文化의 形成과 展開』韓國新石器學會 學術세미나.
- \_\_\_\_\_, 2006, 「신석기시대 어로민의 생계유형」,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_\_\_\_\_, 2008, 「신석기시대 남부지방 문물교류 양상」, 『석당논총』제40집.
- \_\_\_\_\_, 2009a, 「동삼동 패총인의 생업」, 『한국신석기연구』제18호
- \_\_\_\_\_, 2009b, 「한반도 남부지방 신석기문화」, 『한·일 신석기시대의 어로와 해양문화』 제8회 한·일 신석기시대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하인수, 2006a, 「동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어로구」,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_\_\_\_\_, 2006b,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 :편년과 생업을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c, 「신석기시대 골각기의 양상」, 『한국신석기연구』11.
- \_\_\_\_\_, 2009, 「신석기시대 석기의 종류와 양상」, 『박물관연구논집』15. 부산박물관.
- \_\_\_\_\_, 2017, 『신석기시대 도구론』진인진.
- 하재령, 2015,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침두형석기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강문화재연구원 편, 2014, 『한국 선사·고대의 골각기』서경문화사.
- 甲元眞之, 1993, 「朝鮮先史時代の漁撈關係自然遺物」, 『古文化談叢』第30(下)集.
- \_\_\_\_\_, 1997, 「朝鮮先史時代の漁撈文化」, 『古文化談叢』第39集.
- 渡邊 誠, 1982, 「繩文人の食生活」, 『季刊考古學』創刊號, 雄山閣.
- \_\_\_\_\_, 1984, 『繩文時代の漁業』考古學選書 7, 雄山閣.
- 西田正規, 1989, 『繩文の生態史觀』UP考古學選書13, 東京大學出版會.
- 小畑弘已, 1996, 「シベリア先史時代の釣針と漁撈」, 『古文化談叢』第36集.
- 松島義章·前田保夫, 1985, 『先史時代の自然環境』考古學シリーズ21 東京美術.

- 보고서는 지면 관계로 생략하였음 -



Abstract

Research on the Rehabilitation of  
Early Neolithic Period  
-focused on the Jeju Island and Southern areas-

Choi, Jong-Hyuk

Subtle inquiries regarding time setting of early Neolithic Period in Korea are still underpinned in the academic world. Given the results found from Gosanri sites in Jeju Island, there are certain progresses of this research area while showing disparate tendency and absolute age differences compared to early stage of North-East Asia. Most of Korean researches on this certain period seem to focus on the systems and formalities which drains this kind of difference. Therefore, this work mainly sheds light on the everyday life, rehabilitation of early Neolithic Period.

It is also certain that most of early stage sites are limited to Jeju Island, which means rather shortages of Neolithic sites in the peninsula. Natural resources of flora and fauna fluid that is crucial evidence of identifying rehabilitation of prehistoric times are hardly discovered which makes the relevant researches fragmentarily achieved. Based on the research about the location of sites and used implements, it seems that early people actively engaged with gathering and hunting while no certain evidence of fishing. Slightly later, both Jeju Island and Southern areas showed fishing activities and especially heavily engaged in the Southern areas. Earthenware bowl with raised pattern that is typical southern pottery of this period is also found in Jeju Island which proved rigorous interaction between two locals. Stone implements and resources, in the meantime, from peninsula of early stage Neolithic period are uncovered from Jeju Island which are clear proof of both areas. However, it seems there is

no fishing evidence and no fishing sites in the Southern area which means inquiries are not yet answered enough. More substantial clue would be appeared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early stage, rehabilitation, interchange, natural environment,  
Jeju Island, Southern area